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희경 김성훈[†]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의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S)』인 1차년(2010년)도 중1 학년과 중3 학년의 3차년(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78개의 학교에 2,225명이 내재된 구조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했다. 1수준 변인은 미시체계와 시간체계로, 2수준 변인은 중간체계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는 성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ES),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으로 하였으며, 시간체계는 중학교라는 전환기적 환경 변화를 경험한 중1 학년의 학교적응, 그리고 중간체계는 학교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체계 변인인 중1 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중1 학년 때의 학습활동은 .167의 회귀계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전환기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 때의 긍정적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생태학적체계이론,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 다층분석, 학교적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성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학림관 512호, Tel: 02-2260-3382, E-mail: shkim1@dongguk.edu

서론

본 연구는 여러 수준의 환경 특성들이 중3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상급 학교를 준비하는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 학교 질서와 문화의 이해 등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성인기의 성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정아, 2012). 때문에 적응적인 학교생활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기에서 중학생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감 형성이 중요해지고, 다양한 학습과 체험적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Thornberry, 1987)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은 초기(11세~13세)에서 중기(15세~16세)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생태학적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3학년과의 차이를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체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와 적응이 중요해지며, 중학교라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거리 두기와 또래 관계, 또래문화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때문에 중1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발달 단계상 중요한 시기인 전환기의 성장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중3 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욱 구체적이게 되며, 학교생활의 적응이 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환경체계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갈등과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조아라, 2001). 교육부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도 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재적 학생 대비 0.63%이며, 그 중 학업과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이 이유가 되어 중단한 학생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그로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는 다양한 환경체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체계들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적응과 갈등이 나타나는 역동성이 강한 생태학적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역동적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응의 경험은 성인기 발달적 과업의 성취와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동시에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생태적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생태학적 사회 환경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환경체계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란 체계적(System) 관점과 생태적(Ecology) 관점이 결합한 것으로 유

기체를 둘러싼 여러 겹의 자연적·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95).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개인의 경험들이 학교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사춘기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으로 학생 개인의 역할 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을 경험한다.

Bronfenbrenner(1995)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확장된 환경의 여러 국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체계(chronosystem)를 거치면서 둘 이상의 체계를 경험하는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성장,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체계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후기로 진입하는 생태학적 전환기인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각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별과 현재 학년(중3 학년)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는 학교 유형(별학, 남녀공학)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삼았으며, 시간 체계는 중1 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하였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 학급, 동아리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며, 중간체계는 여러 미시체계의 간의 상호작용(집과 학교, 학교와 학원, 동아리 집단과 학급,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문화, 의사소통 등)들이 활발히 기능하는 환경이다. 시간 체계는 시간의 경과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누적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층분석으로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체성, 적응 유연성, 자아 탄력성, 스트레스 강도, 학업 동기, 학업 성취 등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은정, 2008; 박소윤, 2017; 소연희, 2007; 김명희, 차경희, 하정희, 2006), 관계적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애착, 리더십,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학교적응과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이상희, 2011;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정예지, 2015).

위의 선행 연구들처럼 단층분석의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학교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학생에 관한 특성은 학교 환경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종단연구는 여러 시점에서 얻어진 관찰 값들이 각 개인에 내재되어(강상진, 2016)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KCYPS)에

서 중1 패널의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들의 영향을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학교 간 차이는 어떠한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론으로 개체의 발달과정을 환경과의 체계적 관계로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며, 인간의 발달이 사회·물리적 환경의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층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을 둘러싼 역동적 생태학적 환경은 수준에 따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와 시간체계(chronosystem)로 나뉜다. 한 체계 또는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을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이라고 하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미시체계는 개체로부터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친밀한 환경 안에서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를 맺는 행위를 포함하며 개체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진다(Bronfenbrenner, 1993). 예를 들면 생애 초기에는 집과 가족에서 놀이터, 학교, 또래 친구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는다(Bronfenbrenner, 1979).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가정에서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의존과 영향이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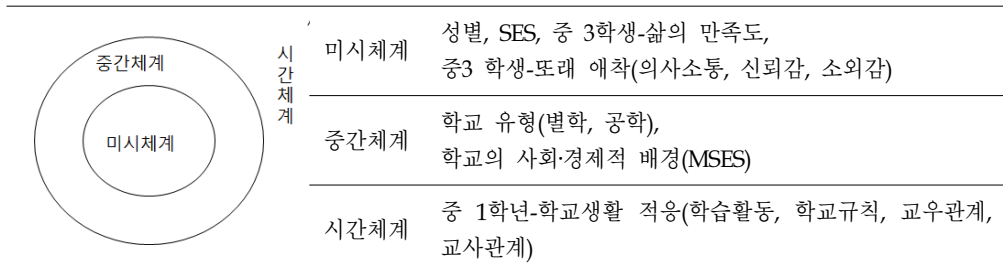
중간체계는 개체에게 존재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망으로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 등, 미시체계 특성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외체계는 중간체계의 확장으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개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로, 부모의 직업 환경, 근무조건, 이웃, 정부 기관,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등은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사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이 역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세대로 전수되는 행동유형, 신념, 관습, 가치관 등,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생태학적 전환은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으로 민감성과 불안이 크게 작동하여 개체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학교 중태, 새로운 친구집단 형성 등, 발달과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건들로 인하여 새로운 중간체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성장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환경적 맥락 안에서 각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Lerner, 1991). 이러한 맥락 중심적인 생태환경 체계는 본 연구인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학교 환경 내에서의 영향을 보다 강조하여 알아보하고자 중간체계, 시간체계, 미시체계로의 생태환경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중 3학년의 생태환경체계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혜, 윤종희, 2013).

Spencer(1999)는 학교가 가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그 안에서 개인의 만족감이 충족되는 상태를 학교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과 요구 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인 가정 환경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정유진, 1999). 개인적인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이며, 가정 환경적 변인은 가족의 형태와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등, 물리적 환경과 가족 상호 간의 정서적 관계인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환경 안에는 부모의 심리·정서적인 부분과 부모의 행동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으로 안정된 가정환경과 친애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학업 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및 규칙의 준수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환경이 긍정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높은 경우에도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강현미, 2008).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수용적인 가정과 신뢰를 중요시한 가정일수록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문선모, 윤기수, 1984).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ecker(1993)의 연구에서 자녀의 학업·경제적 성공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교 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적응에도 개인적 요인과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학교효과라고 하며 Raudenbush와 Willms(1995)는 학생 개인의 배경과 학교의 맥락적 요인, 학교의 정책적 실행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삶을 잘 수행해 왔다는 만족함(Fujita & Diener, 2005)을 일컫는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기 존중감, 또래 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이나 부모 양육 태도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생태학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활안정, 적응성, 자아인식, 정신 건강, 기쁨, 안녕,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Andrews & Withey, 1976).

청소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성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가족 구성원의 개방적 의사소통, 애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역시 생태학적 맥락의 미시체계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등학교보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김의철, 박영신 1999;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지표에 있어 일관성 있게 더 높게 연구되었다(김혜원, 홍미애, 2007).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삶의 만족감을(구현영, 박원숙, 장은희, 2006) 나타냈으며, 최희철, 황매향과 김연진(2009)의 연구 외에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학습적인 부분 등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작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임영실, 2004; 허영선, 2009).

삶의 만족도는 현재까지의 개인의 다양한 체계 안에서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되는 것으로 입학 시기인 중 1학년 때와 졸업반인 중 3학년 때의 삶의 만족도는 미시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전환기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 관계

또래란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성숙한 정도의 수준이 비슷하여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Santrock, 1990), 또래 관계는 심리적 발달영역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지각과 자기 개념형성, 정서 조절 능력, 언어적·사회적 상호작용, 인지 발달, 도덕적 추론 능력, 대인관계 지향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발달해 간다(Dunn & Slomkowski, 1992; Katz, Kramer, & Gottman, 1992). 또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며, 여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도 가진다(Dubow & Tisak, 1989; Sullivan, 1953).

Sullivan(1953)의 연구에서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게 형성될수록 아동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발달에 더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였으며, Coleman(1993)은 친한 친구의 수는 외로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학교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도구적 특성을 발달시키고, 또래에게서 오는 지지는 학교 참여와 성취에 정적인 상관이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구자은, 2000).

그러나 또래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정서적, 인지적 등의 기능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기에 대립과 갈등, 처벌과 같은 부정적 상호교환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Cole & Cole, 1993; Parker & Asher, 1993).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또래 관계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없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

S)』로 2010년도 중1 학년의 1차 연도 데이터와 2012년도 중3 학년의 3차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결측치들을 제거하여 최종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으로 여학생은 1,099명(49.3%), 남학생은 1,127명(50.7%)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

아동·청소년 패널 설문지로 사용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로 구분하여 미시체계와 시간체계는 1수준의 학생 변인으로 중간체계는 2수준의 학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성별과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의 최종 학력을 평균함),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이며, 시간체계 변인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적응으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 변인은 학교 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학교특성 변인으로 하였다. 학업성취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과 학교 유형은 학교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이범수, 2006)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평균(Mean SES)하여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추출하였다. 변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인설명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α
중3 학교 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744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중3 학교 생활 적응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789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교우관계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53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41
미시체계 : 중3 또래애착, 중3 삶의 만족도, 성별, 개인 SES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823
또래 애착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787
	* 소의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765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13
성별	1. 여(1,099명, 49.3%) 0. 남(1,127명, 50.7%)	
SES	부-최중학력, 모-최중학력, 보호자최중학력의 평균	
시간체계 : 중1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723
중1 학교 생활 적응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0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547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28

중간체계 : 학교유형(별학, 공학), 학교MSES

MSES	각 개인의 SES를 학교별 평균으로 산출함	
학교유형	1. 공학 (1,710명, 76.9%)	0. 남, 여 별학 (515명, 23.1%)

* 역코딩 함(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표 2> 연구모형

모형	수식
기초모형	학생수준: $Y_{ij} = \beta_{0j}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모형1 미시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 u_{2j},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 u_{4j},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모형2 시간체계 (미시+시간 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beta_{7j}(\text{중1학습}) + \beta_{8j}(\text{중1규칙}) + \beta_{9j}(\text{중1교우}) + \beta_{10j}(\text{중1교사})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 u_{2j},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 u_{4j},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beta_{7j} = \gamma_{70} + u_{7j}, \beta_{8j} = \gamma_{80} + u_{8j}, \beta_{9j} = \gamma_{90} + u_{9j}, \beta_{10j} = \gamma_{100} + u_{10j}$
모형3 중간체계 (미시+시간 +중간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beta_{7j}(\text{중1학습}) + \beta_{8j}(\text{중1규칙}) + \beta_{9j}(\text{중1교우}) + \beta_{10j}(\text{중1교사})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구분})_j + \gamma_{02}(MSES)_j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beta_{7j} = \gamma_{70} + u_{7j}, \beta_{8j} = \gamma_{80} + u_{8j}, \beta_{9j} = \gamma_{90} + u_{9j}, \beta_{10j} = \gamma_{100} + u_{10j}$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다층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1단계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SPSS for Window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

도, 침도,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이하 HL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표 2와 같다.

연구결과

1. 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이 연구대상이었으며, 학생 성비는 남학생 50.7%, 여학생 49.3%로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다. 학교의 형태는 공학이 76.9%, 별학이 23.1%로 공학의 비율이 높게 표집 되었다.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기술통계 결과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VIF
GENDER	2225	.49	.50	.03	-2.0	1.08
SES	2225	2.62	1.03	.23	-.76	1.22
중1학습활동	2225	2.73	.50	-.25	.48	1.62
중1학교규칙	2225	2.76	.48	-.13	.60	1.48
중1교우관계	2225	2.99	.40	-.16	.73	1.38
중1교사관계	2225	2.71	.67	-.15	-.13	1.33
중3삶-만족	2225	2.85	.67	-.03	-.19	1.22
중3의사소통	2225	3.06	.53	-.13	.99	2.41
중3신뢰	2225	3.16	.55	-.44	.91	2.48
중3소외	2225	2.91	.73	-.52	.13	1.05
학교유형	78	.78	.42	-1.27	-.38	1.01
MSES	78	2.61	.40	.751	.46	1.20
중3학교적응	2225	2.89	.39	.080	.58	

자료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중 3학년 학교2,225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학생과 학교 수준의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지수(VIF)는 2.5이하로 문제되지 않았으며, 다변량 정규성 검증의 기준인 왜도와

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역시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Kline, 2011) 정규성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차 연도인 중 1학년은 2,351명이었으며 중3학년이 되는 3차 연도에는 2,259로 3.9% 결측률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측치 제거 후 최종 분석 대상은 2,225명이다.

2. 다층분석 결과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과 학생, 학교의 전체변량을 알 수 있으며, 전체변량 중 학교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기초모형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 평균값은 2.89이며, 95% 신뢰구간은 [2.87 - 2.92]를 가진다. 학생수준변량은 .146이며, 학교변량은 .008로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498로 전체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5%의 학교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초모형 분석을 통한 변량분할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95%를 차지하는 학생개인수준과 5%의 학교수준 변량을 나타내며, 이는 이후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 각 수준별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연구모형1 - 미시체계

미시체계모형은 기초모형을 통해 추정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분산이 각 수준에서 미시체계 변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모형의 학생수준변량(r_{ij})과 학교수준변량(u_{0j})은 미시체계모형에서 각 .114와 .002로 줄었다.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 개인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하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설명력이 22%였다. 이는 학생을 둘러싼 밀접한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변인의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시체계 변인들의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평균은 2.89이고, 성별 회귀계수(γ_{10})=.04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41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회귀계수(γ_{20})=.035, 삶의 만족도(γ_{30})=.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에착과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의사소통의 회귀계수(γ_{40})=.170과 소외의 회귀계수(γ_{60})=.029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신뢰의 효과는 .039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1점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3 때의 또래 간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중3 때의 삶의 만족도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4> 중3학생 학교생활적응의 다층모형 분석결과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변수: 고정효과								
중3-학교적응 전체평균(γ_{00})	2.891***	.013	2.891***	.010	2.895***	.009	2.893***	.009
미시체계변인								
성별(γ_{10})			.041*	.019	.040*	.018	.042*	.017
개인-SES(γ_{20})			.035***	.006	.005	.005	.002	.005
중3-삶만족(γ_{30})			.128***	.013	.090***	.011	.090***	.011
중3-의사소(γ_{40})			.170***	.019	.134***	.018	.133***	.018
중3-신뢰(γ_{50})			.039	.022	.030	.019	.030	.019
중3-소외(γ_{60})			.029*	.012	.024*	.012	.024*	.012
시간체계변인								
중1-학습(γ_{70})					.167***	.022	.167***	.022
중1-규칙(γ_{80})					.132***	.016	.130***	.017
중1-교우(γ_{90})					.073***	.023	.072**	.023
중1-교사(γ_{100})					.050***	.012	.052***	.012
중간체계변인								
학교유형(γ_{01})							.033	.023
학교-MSES(γ_{02})							.039*	.018
독립변수: 무선효과	분산	<i>p</i>	분산	<i>p</i>	분산	<i>p</i>	분산	<i>p</i>
학생수준(r_{ij})	.14626		.11390		.08527		.08533	
학교수준(u_{0j})	.00767	***	.00245	*	.00248	**	.00247	**
중3-신뢰(u_{5j})			.01023	*				
중1-학습(u_{7j})					.01786	*	.01761	*
전체분산	.15393							
집단내상관(ICC)	.04983							
누적된학생수 R^2			.22125		.41700		.41659	
누적된학교수준 R^2			.68057		.67666		.67797	

* $p < .05$, ** $p < .01$, *** $p < .001$

무선효과로서의 분산은 .05수준에서 유의한 추정치만 제시함.

연구모형2 - 시간체계

시간체계모형은 미시체계모형에 시간체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시간체계모형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간체계모형의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은 2.895이고, 학생수준변량(r_{ij})은 .085이고, 학교수준변량(u_{0j})은 .002로 여전히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수준의 변량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수준이 차지하는 변량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체계 변인인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42%로 각 변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중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의 회귀계수(γ_{70})=.167로 학습활동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이 .167만큼 증가하였으며, 중 1학년 때의 학교규칙의 회귀계수(γ_{80})=.132로 학교규칙의 적응정도는 3학년 때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우관계의 회귀계수(γ_{90})=.073이고 교사관계의 회귀계수(γ_{100})=.050로 두 변인 모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간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1 때의 학업활동으로 학습활동이 좋을수록 중3 때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1 때 학교규칙에 잘 적응할수록 3학년 때 역시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한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나는 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상급 학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연구모형3 (조건모형) - 중간체계

중간체계 모형은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학교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설정하여 시간체계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중간체계 모형은 시간체계 모형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교수준 독립변인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중 3학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은 이 전 단계와 같이 학교수준 변량의 3%를 설명한다. 이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이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기에 미시체계 모형에서 개인-사회적 배경(SES)으로 이미 설명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중 3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95%의 학생 개인수준과 5%의 학교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각 체계의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학생수준에서는 42%, 학교수준에서는 3%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체계의 경우 학생 개인의

밀접한 환경에서 확대된 학교의 문화, 동아리 특성, 학교 학업성과 등 학교특성으로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의 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각 체계적 환경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와 학생 수준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체계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중3 학생의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미(2012)의 연구와 같이 미시체계 변인인 친구의 지지와 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뿐 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또래관계는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강하나, 용혜련, 황현석, 2016)와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중 친구관계를 강조한 김두환, 김지혜(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친구의 지지를 강조하는 구자은(2000), 이수하(2005)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같은 고민과 갈등을 공유함으로써 죄책감과 긴장감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최지은, 신용주, 2003)는 본 연구의 또래 관계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준다.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친구가 많고 친구를 필요로 하고 그 관계가 기능적일수록 유능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역시 청소년 시기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형성의 발달과 확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이 시기에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외로움과 우울의 경험이 많으며,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기 힘들며 스트레스 환경에 취약한 상태로 심리적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이는 또래관계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대립과 갈등 등의 부정적인 역동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적, 역기능적 적응의 경험 역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건강하고 기능적인 또래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개인 내적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미시체계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의 기능이 중요하며, 중간체계에서는 학교 내의 소규모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또래 간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체계 변인은 전반적으로 다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며, 그 중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이었다. 김대현과 김현

주(2003)의 질적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비롯하여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들과의 관계, 많아진 학습량,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 교우문제, 엄격한 생활규제와 압박감 등, 변화된 환경적응의 어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학교 입학은 학생 개인에 따라 자기발전의 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유순화, 2008) 하여 본 연구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활동과의 관계는 성적과 학교적응의 정적관계인 연구와도 일치한다(곽수란, 2006). 때문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 개인의 성취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 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 높을수록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적 관여가 높으며(신명호, 2010),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인다는(이중섭, 이용교, 2009)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적응과의 정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에서 오는 학교 간 차이는 지역 간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몇 가지 한계와 후속적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s)』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각 체계의 환경변인을 설정하였기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설정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 비행 등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와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체계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시간체계만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여전히 학군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속한 외체계인 지역사회의 특징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간체계 변인으로 설정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개인 특성과 많은 부분이 혼재된다. 때문에 학교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문화, 성과 등의 변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미시체계 변인에서 학생 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모와 가족에 대한 변인

설정이 미흡하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의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중학교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사춘기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생태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성장 급등기로 98%의 신체성장이 사춘기에 이루어지고(Tanner, 1978)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1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까지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 진다. 즉,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들 안에서 학생들은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취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수용이 미시체계를 비롯한 각 환경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환경과의 소통을 통한 경험의 누적은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뿐 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하나, 용혜련, 황현석 (2016). 청소년 시기의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학습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7(10), 449-457.
- 강현미 (2008). 초등 영재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영, 박원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교육부 보도자료 (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http://www.moe.go.kr>에서 검색.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회, 45(4), 128-168.
- 김대현, 김현주 (2003). 입학 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 김명희, 차경희, 하정희 (2006). 중학생들의 학습동기, 다중지능,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3), 57-79.
- 김은미 (2012).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문선모, 윤기수 (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상대학교논문집, 23(1), 295-30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소윤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2), 217-245.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유순화 (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범수 (2006) PISA 2003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국제비교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2), 523-547.
- 이상희 (2011). 아버지 애착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섭,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6, 159-191.
- 임영실 (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정정책연구, 16(2), 61-94.
- 조아라 (2001). 중·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1.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정예지 (2015). 자기조절학습,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허영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53.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 and fugitive finding. In R. H. Wozniak & K. W. Fisher (Eds.), *Development in context* (pp. 3 - 44). Hillsdale, NJ: Erlbaum.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Reflections of a participant observer. In P. Moen, G. H. Elder Jr., & K. Lü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599 - 6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oleman, J. C. (1993). Understanding adolescence today: A review. *Children & Society*, 7(2), 137 - 14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Dunn, J., & Slomkowski, C.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0-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64.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22-1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erner, J. (1991). Research perspective in social competence. *Meril-Palmer Quarterly*, 2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audenbush, S., & Willms, D. (1995). The estimation of school effect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0(4), 307-335.
-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4th ed.). Dubuque, IA: William C.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anner, J. M. (1978). Interaction of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ontrolling growth. In J. M. Tanner (Ed.), *Education and physical growth* (2nd ed.) (pp. 90-114).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Effect of the School Ecological System Variables on Ninth Graders' Adjustment

Kim, Hee-Kyung Kim, Sung-H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crosystem, time system, and mesosystem variable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ninth graders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study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of the data of seventh graders in Year 1 (2010) and their data as ninth graders in Year 3 (2012) including 2,225 students from 78 schools. The first level included microsystem and time system variables, and the second level measured mesosystem variables. The microsystem variables wer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one's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S), the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of ninth graders. The time system variable was the school adjustment of seventh graders who experienced an environmental change to middle school. The mesosystem variables were the school type and the school's social and economic status (M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chool adjustment sub-variable of seventh graders and the time system variabl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The learning activities of seventh graders, in particular, recorded the highest regression coefficient at .167.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ositive school adjustment in the seventh grade, which is a transition period, 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Key words : ecological systems theory, microsystem, chronosystem, mesosystem, multilevel analysis, school adjustment

